

원전 오염수 방류 앞두고 일본서 '세슘 물고기' 속출

후쿠시마 원전 항만서 잡힌 우럭, 기준치 180배 세슘 검출 일본 주변국서도 불만...“문제 발생 시 후속조치 없어” 지적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원전 인근에서 잡은 생선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는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종이 제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전 인근 어민은 물론 일본 주변 국가·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인 1kg당 100벵크렐(Bq)의 180배나 되는 1만8천벵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우럭은 길이 30.5cm에 중량 384g으로, 원전 1-4호기의 바다 쪽 방파제에 둘러싸인 해역에서 잡혔다.

방사성 물질 함유량이 많은 물이 흐르는 이곳에서 지난 4월 잡은 쥐노래미

를 조사한 결과, 1kg당 1천200벵크렐의 세슘이 나오기도 했다.

도쿄전력은 해당 수역에 사는 물고기가 항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원전과 거리가 있는 바다에서도 종종 세슘 함유량이 많은 생선이 어획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월7일에는 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지역 어업협동조합이 정한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함유된 농어가 잡혔다.

후쿠시마현 어업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1kg당 세슘 50벵크렐을 출하 기준치로 정했는데, 이 농어에서는 1kg당 85.5벵크렐의 세슘이 검출돼 지역 어민들이 3월 말까지 농어 출하를 자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 인근에 터전을 둔 소마후타바어업 관계자들은 전날 니시무라 아스토시 경제산업상을 만나 불안감을 호소했다.

곤노 도시미쓰 조합장은 “조합은 방류를 강하게 반대한다”며 오염수 방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잡은 생선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방류를 앞둔 원전에 보관중인 오염수.

로 인해 후쿠시마 지역의 부흥을 위한 노력이 수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이른바 ‘소문 피해’(풍평 피해)에 관련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수십 년

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오염수 방류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은 지역 어민뿐만 아니라 태평양 도서 지역과 주변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정치인들은 지난 3일 일본 국제법률가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가 생활을 흐드는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남태평양 피지의 피오 티코두아두아 내무인부 장관은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만약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다면 왜 자국에 두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면 언젠가 남쪽으로 흘러올 터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7일 기자회견에서 오염수와 관련해 “방사선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며 일본 정부를 견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오염수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를 대비해 마련해야 할 후속조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쿄전력이 지난 6일 개최한 회의에서 한 전문가는 “처리수를 희석한 해수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방류 전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질의했으나 도쿄전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이 이달 중에 방류 설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펜스 前 美부통령, 대선출마 선언

“트럼프, 대통령 돼선 안 돼”...한때 동지와 ‘완전결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어제의 동지’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주요 방송을 통해 생방송된 아이오와주(州) 앤케나에서 연설을 통해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가치 차이를 언급하면서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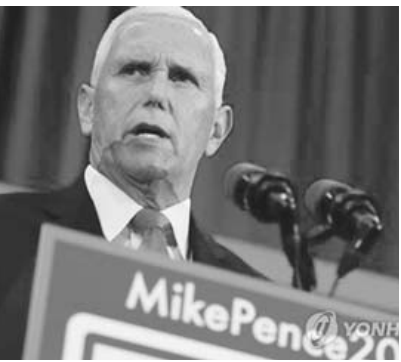
그는 지난 대선 직후인 2021년 1·6의 회 난입 사태를 거론하며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 당시 부통령이던 자신에게 헌법을 어기라고 종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에 걸맞지 않은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그 파멸적인 날에

대해 알 자격이 있다. 트럼프는 나에게 그와 헌법 중 택일하라고 요구했다”며 “이제 유권자들은 같은 선택에 직면할 것이며, 난 헌법을 택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부분적으로 우리를 오늘 이곳으로 이끈 한마디는, 헌법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사람은 결코 미국의 대통령이 돼선 안 되며 누군가에게 헌법보다(자신을) 더 우선하려고 요구하는 사람 역시 미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재임 당시인 4년 내내 트럼프를 옹호한 ‘충성파’였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 결과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인정하지 말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을 어기며 둘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갔다.

펜스는 당시 ‘상원의장’ 자격으로 상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하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의 정치 브랜드가 너무 분열적이라고도 지적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 데 묶어 비난하기도 했다.

미 부통령이 한때 함께 일했던 대통령을 상대로 대선 도전장을 내민 것은 미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연합뉴스

악어 자기복제 첫 확인...수컷없이 새끼 낳아

암컷 악어가 수컷 악어 없이 스스로 임신해 알을 낳은 자기복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7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보도했다.

이날 영국 왕립학회가 발행하는 ‘바이올로지 레터스’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악어는 2018년 1월 중미 코스타리카 램탈리아 동물원에서 알을 낳았다.

“멕시코 군인들이 민간인 5명 사살”...사건현장 조작 정황 드러나

멕시코에서 장병들이 민간인들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뒤 현장을 조작하고 내 영상에는 빠른 속도로 달리던 검정색 픽업트럭이 한 건물 벽을 들이받으며 멈춰서자, 군용 차량을 타고 뒤따라온 장병들이 픽업트럭 주변을 에워싸는 모습이 담겼다.

이윽고 장병들은 트럭에서 5명을 끌어내리고서 벽 쪽에 기대게 한 뒤 공중

이 악어는 2살 때부터 거의 일생을 다 큰 악어들과 분리된 채 지냈는데, 18살이 된 해에 알을 낳은 것이다. 새끼는 완전한 형태로 발달했지만 부화하지는 못했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감지한 동물원은 이른바 ‘처녀 생식’으로 불리는 단성 생식을 11년 간 연구한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 워런 부스 박사에게

리파스주 누에보라레도에서 발생했다. 영상에는 빠른 속도로 달리던 검정색 픽업트럭이 한 건물 벽을 들이받으며 멈춰서자, 군용 차량을 타고 뒤따라온 장병들이 픽업트럭 주변을 에워싸는 모습이 담겼다.

이윽고 장병들은 트럭에서 5명을 끌어내리고서 벽 쪽에 기대게 한 뒤 공중

도움을 청했다. 단성 생식은 암컷이 수정하지 않고 배아를 형성시키는 방식을 뜻한다.

부스 박사 분석 결과 죽은 새끼는 유전적으로 어미 악어와 99.9% 일치했으며, 어미를 임신시킨 수컷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부스 박사는 “우리는 상어, 새, 뱀, 도마뱀 등에서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놀랄 만큼 흔하고 널리 퍼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안전기원제 고사
시제상
제사상
고사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